

**농림축산식품부**

**2월까지 농식품 수출 12.8% 증가  
전년동기대비...채소류·유제품 호조**

금년 2월까지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9.1억불) 대비 12.8% 증가한 10억 3천억불로 집계됐다.

1월(5.0억불, 전년 대비 7.1%↑)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3개국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부류별로 보면, 채소류·유제품 등은 증가한 반면, 화훼류·과실류·기금육류는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사드 배치 관련, 앞으로 중국의 한국 식품에 대한 통관·검역 강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수출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업체들은 과거보다 서류나 라벨링 심사 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심사 절차 강화와 절차 지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농식품 수출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 농식품 수출 산업의 체질개선과 성장 동력 발굴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특정국 편중에 따른 수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우리 농식품 브랜드를 육성한다. 농식품 전후방 연관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농산업을 수출 선도 산업으로 육성과 관련 이를 위해,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연관산업의 수출 및 산업 동향 등 통계를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 개소  
충북·경기 등 9개 시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가 3월 9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충청도 11개 시군과 경기도 화성·평택시 등 9개 시군을 관할, 가축질병 예방관련 교육과 현장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임경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무실은 청주시 청원구 한국전력공사 동청주시사 건물에 위치한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방역기술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일선 방역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육포장처리업체 일제점검 실시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체 6,388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되는 축산물(식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전국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체 6,388곳('16.12.31.기준)을 전수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과 함께 재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년월일·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업종외 영업행위, 식육 등급·부위 둔갑 판매,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기반을 확보하도록 고의적 위반자는 문제영업자로 지정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도별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해 축산물 위생안전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월드비전과 업무협약 체결 식품안전·영양교육 공동실천 캠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회장 양호승)과 함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실천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3월 8일 식약처에서 체결했다.

### 농촌진흥청

#### 일교차 큰 봄...가축 면역력저하 주의 주요가축 관리요령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봄철 큰 일교차가 가축의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소·돼지·닭 등 주요 가축의 관리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봄에는 닭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사료의 질과 양을 조절해 지방계의 발생을 예방하고, 길어지는 일조시간에 맞춰 점등 관리를 철저히 해 신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어린 병아리는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져 처음 1주 동안은 31℃~33℃ 정도를 유지하다가 1주일 간격으로 약 3℃씩 온도를 내려주고 20℃ 전·후가 되면 가온을 중단한다.

계사(닭장) 내의 습도는 병아리 기르기 초기에는 70%, 2주령에는 65%, 3주령 이후에는 60% 정도가 적당하다. 실내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주 정도는 바닥에 물을 뿌려주거나 가습기를 사용한다. 환기가 안 되면 콕시듐증, 장염, 호흡기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발육이 늦어지며 사료효율이 나빠지고 폐사율이 높아지므로 일령, 기후 등 고려해 환기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이병철 농촌지도사는 “봄은 가축에게 추위에서 벗어나는 시기이자 대사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세심한 정성과 합리적인 관리는 가축들을 더욱 건강하게 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생산단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교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 인증원)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축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단계별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생산, 공급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물영업자에게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교육은 개정된 축산물HACCP 컨설팅 시행지침에 따라 올해 추진할 HACCP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컨설팅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생산단계 컨설팅사업에 선정(인증)된 10개 업체와 지자체 사육단계 HACCP 컨설팅사업 담당자, HACCP인증원 농장사료팀 심사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리에 실시됐다.

첫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주무관에 의해 '컨설팅 사업지침 및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HACCP 인증원 농장사료팀장(김형식 팀장)에 의해 컨설팅사업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 업체 평가계획과 컨설팅 진행사항 점검 방안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김형식 팀장은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며 "신청 대상은 축산농가(소, 돼지, 닭·오리, 부화장 등)와 축산물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공업, 판매업)로, 인증원은 컨설팅 업체의 전문적·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및 진도관리를 통해 조기 사업 진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2016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발간  
등급판정결과·가격동향 상세분석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축산물에 대한 효율적 정책수립과 유통 원활화 및 가축개량을 통해 축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6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소, 돼지, 닭, 계란, 오리 등의 축산물 등급판정결과와 가격동향 등의 상세분석 내용을 수록했다. 발간 책자는 정부 행정기관, 언론사, 학회, 학교, 축산 관련 단체 등 340여 곳에 배부할 예정이다.

축평원에서는 통계연보 수록 내용이 축산 정책과 산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 통계연보의 내용은 정부3.0에 따라 3.7일부터 축평원에서 운영 중인 축산유통정보종합포털 통계 자료실을 통해 개방·공유된다.

백중호 축평원장은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가 연구기관·학계·관련 단체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R&D사업, 현장에 귀 기울인다  
농식품 안전관리 연구 수요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일선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식품 안전관리 연구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해 4개 분야 40개 연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원산지 거짓표시, 농약 안전사용 위반, 양곡 및 전통식품 허위표시 차단 등 현장의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정책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과제를 발굴,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나해에는 안전성분야 '잔류농약 320성분 동시 다성분 분석법 적용 품목확대 연구'등 4개 분야 37개 연구 과제를 추진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안전성 분야는 저비용 고효율의 현장 분석 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시에 신속하면서 정확한 전문분석 기술을 확보하는 '잔류농약 320성분 동시 다성분 분석법 적용 확대 연구'를 완료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앞으로도 기후 변화와 산업 발전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과 수입 다변화로 인한 부정유통 수법의 지능화 등에 따라 세심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연구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남태헌 농관원장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식품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단장비, 원천 기술 등의 확보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연구개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최적관리 컨설팅’협약 체결  
농가 자발적 사육환경개선 지원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과 안상용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이 직접 서명한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사육환경개선을 해나가도록 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간 소득 수준의 향상과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로 추진됐다.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가축분뇨법에 의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도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악취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하천 수질오염 우려 및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있는 50여개 농가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낸다.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경남도는 대상농가 선정과 홍보, 그리고 축산사업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협약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농가별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